

내가 찾는 아름다운 꽃



이정규
캘거리 교민
교육학자/시인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아름다운 꽃 찾아
이곳 저곳
뜰과 정원
산과 들
천지사방
봄 여름 가을 겨울
밤낮으로 쉼 없이 찾아 보았네

찬란한 햇빛
교묘한 달빛
신비한 별빛 담은
오묘한 빛깔
청량한 대기
신선한 바람
청아한 초목(草木) 담은
그윽한 향기

갖가지 모양 지닌
온갖 아름다운 꽃 찾아
바라보고 만져보고
말아보았지만
내가 찾는
아름다운 그 꽃은 아니었네

꽃의 아름다움은
해와 구름
달과 별
비와 바람
공기와 땅이
만들어 주는 것이지만

내가 찾는 꽃의 아름다움은
웃음과 마음
마음과 믿음
믿음과 소망
소망과 사랑이
만들어 주는 것이리라

*가톨릭 신앙 잡지, <가톨릭 비타폰>
2015년 3월호 42쪽에 게재된 시

<종교컬럼>

손승희 목사
캘거리 사랑의 교회 담임



하나님!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내지 못하고 자기들도 잡혀 갔느니라”

바벨론의 벨 마르둑 주신과 그의 아들로 지혜의 신이라 불리는 느보는 스스로 움직이지 못하니 이동할 때 짐승의 무거운 짐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전쟁 중에 수레에 실고 도망치다 보니 우상들이 넘어졌습니다. 마네킹을 실고 가는 모습을 상상하시면 될 것입니다. 무거운 짐이 된 우상 때문에 도망치다가 적에게 잡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어지는 3, 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을 품에 안고, 등에 업고 구하여 내시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우상과는 대조가 됩니다. 하나님은 살아 계신 분이십니다.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품에 안고, 등에 업고 구원해 주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상에 대해서 나눌 때 한 초등학생은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말씀을 묵상하면서 나에게 우상은 무엇일까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저는 핸드폰이 나의 우상을 깨달았습니다. 우상이 아무 말도 할 수 없는 죽은 것처럼 핸드폰이 저의 인생에 대해 아무 말도 해줄 수 없는데 너무나 의지했습니다. 앞으로는 핸드폰 우상을 멀리하겠습니다.”

저도 나의 우상은 무엇일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텃밭 가꾸는 것이 저의 우상이라고 고백했습니다. 예배드리는데 그 순간에도 저의 머릿속에는 텃밭에 무엇을 심을까하는 생각이 문득 문득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에게 우상은 무엇입니까?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우상은 무엇입니까?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기도합니다.

“나는 여호와이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준엄하신 이 선포 앞에 저와 여러분은 이렇게 응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코로나 19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나는 여호와이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이사야 42:8)

요즘 저희 가족과 다른 집사님 한 가정의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매일 저녁에 모여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 시간에는 그날의 큐티 본문을 가지고 나누며, 교회와 성도들, 가족들을 위해 합심기도를 드립니다. 종종 아이들에게 이렇게 질문합니다. 큐티할 때 성경본문을 몇 번 읽었는지, 말씀을 통해 발견한 버려야 할 죄는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특별히 주신 말씀은 무엇인지, 실천해야 할 것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묻습니다.

아이들이 성경본문을 한번 읽는다는 대답을 듣고는 제가 좀 황당했던 적이 있습니다. 어떻게 한번 읽고 내용을 파악할 수 있느냐 말입니다. 아이들에게 최소한 5번은 읽으라고 했습니다.

다음날이 되었습니다. 모임에서 막내인 초등학생 아이가 자리에 앉으면서 자랑합니다. “목사님! 오늘은 5번 읽었습니다.” 참으로 대견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었습니다. 5번 읽는 것에만 신경 쓰다가 무슨 내용인지는 전혀 기억나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어린아이니까 귀엽기는 합니다.

요즘은 이사야서가 큐티 본문입니다. 이사야서를 묵상하면서 말씀의 영광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힘든 상황 속에 있는 이 시대와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하던 격변기는 닮은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셔서 이사야서를 통해서 코로나19로 힘든 상황을 보내고 있는 성도들에게 버려야 할 죄와

불잡아야 할 약속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나는 여호와이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이사야 42:8)

저는이사야 42장 8절의 말씀을 종종 묵상하면서 이렇게 기도해 왔었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상은 사람의 작품입니다. 사람들은 나무로 우상을 만듭니다. 그 나무의 일부는 뿔감으로 사용하고, 일부는 우상을 만듭니다. 그리고 은, 금 등 보석으로 화려하게 장식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생명이 없습니다.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합니다. 손발이 있어도 움직이지 못합니다.

몇 주 전에는 5명의 아이들이 저희 집 뒤뜰에서 나무를 자르고, 드릴로 구멍을 뚫고, 샌드페이퍼로 표면을 매끄럽게 하면서 자신이 원하는 무언가를 만들었습니다. 반지도 만들고, 어떤 아이는 악세사리 걸이도 만들었습니다. 제법 근사하게 만들었습니다. 우상은 아이들이 만든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모두 사람의 작품입니다. 그런데 그 우상을 신이라고 섬기고, 복을 빌고 있는 것입니다.

아주 재미있는 내용이 이사야 46장 1, 2절에 있습니다. “1벨은 옆드러졌고 느보는 구부러졌다 2그들의 우상들은 짐승과 가축에게 실렸으니 너희가 떠메고 다니던 그것들이 피곤한 짐승의 무거운 짐이 되었도다 2그들은 구부러졌고 그들은 일제히 옆드러졌으므로 그 짐을 구하여

